

---

# 2021년 제13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3. 26. ~ 4. 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01

### 【총 평】

‘약초로 뒤덮인 치유의 숲을 아시나요.’는 황폐한 산을 자연생태 약초박물관으로 가꿔가는 귀산 6년차 57세 산사나이의 꿈과 의지를 섬세하게 그렸다. 주인공이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을 자연치유를 통해 극복해가는 과정과 동갑내기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이어가는 산중 생활이 소확행의 의미를 일깨웠다. 느낌과 긍정을 강조하는 의지와 집념의 남편과 소소한 산중 생활을 즐기는 아내의 재담이 어우러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밖에 산중에 서식하는 쑥, 달래, 냉이, 다래, 석창포, 노루발꽃 등이 눈을 즐겁게 했다.

### 【구성 및 내용】

산 하나를 약초박물관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도전을 시작한 귀산 6년차 부부는 밀림같은 산을 하나하나 변화시켰다. 산 전체가 박물관으로서 기존 고정관념의 박물관 방식이 아닌 길을 따라가면서 약초를 보고 자연생태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산을 배경으로 살고 있어서 자연 속 봄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뇌경색 후유증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인내, 집념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부부가 자연 속에서 건강과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원래 철인 3종 경기를 즐길 정도의 주인공은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재활이 아닌 다시 산으로 돌아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

봄이 되면 곳곳에 쑥부터 달래, 냉이 등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 땅의 기운을 듬뿍 담은 봄나물을 직접 채취해서 된장국을 끓이거나 비빔밥을 해먹는다. 자연과의 공생, 흙이 주는 위안과 치유 등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되새겨볼만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산 전체를 약초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주인공의 독특하고 과감한 발상이 눈길을 끄는 소재였다. 약초박물관 곳곳에는 주인공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다래냉쿨을 제거하고 수액채취도 한다. 밤새 받은 다래 수액을 회수하고 부부가 함께 나눠마시는데, 부부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또, 왕태령씨는 직접 모든 일을 하면서 재활효과를 느끼고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다.

장작패기는 꼭 필요한 일이다. 몸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장작패기가 힘들어졌지만 오히려 재활운동의 일종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등산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약초에 대한 관심이 생겨 본격적으로 한방건강과를 들어가서 한방과 약초를 공부했다. 그리고 장작패기는 꼭 필요한 일이다. 몸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장작패기가 힘들어졌지만 오히려 재활운동의 일종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오늘 방송은 내레이션이 내용 전체를 수식하지 않고 보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좋았고, 주인공 부부가 주체가 되서 1인칭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갔는데 소재의 성격상 적절했고, 그래서 좋은 느낌을 전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07

### 【총 평】

‘반백년 전통지게 인생 하모니’는 3대에 걸쳐 전통지게를 만드는 우직한 노인의 장인 정신, 의지와 인내, 사명감을 잘 그려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대비되는 전통지게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의 의미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게 만들기를 통해 사라지는 전통의 유용함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통 지게를 만드는 다큐형태의 구성으로 나무 구하기에서부터 발채 만들기까지 수작업 전과정이 섬세하게 영상으로 구성해 전통기록물로 가치를 남겼다. 벚짚으로 새끼 꼬기, 발채 만들기 등의 소리가 정교하게 채집되었고, 산새소리, 송아지 울음소리도 프로그램의 청각특성을 충분히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세종시 조치원 작은 시골집에서 ‘전통 지게를 만드는 장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통을 지키는 지게장인의 지게제작 과정부터 지게의 가치와 그 속에서의 소리를 전해주었다. 지게를 손수 만드는 제작과정을 상당히 세심하게 담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소리는 물론 전통지게가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게 전해졌다.

전통지게 장인의 열정을 진지한 표정과 손짓, 손길 하나하나가 일궈내는 소리에 얹어서 제대로 표현해, 점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재였다. 장인의 목소리와 구성진 이야기가 좋은 느낌을 주었고, 작업할 때의 진지한 표정과 섬세한 손길 등이 뒤따르는 소리와 잘 어우러졌다.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씹어볼수록 의미가 살아나는 맛이 있었다. “지게 양쪽 몸체의 짝을 맞추기가 어려워, 결혼도 마찬가지여”, “앞으로 15년 더 못 만들겠나, 힘닿는데 까지는 해야지”, “지게는 앞으로 몇백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쓸 데가 많지” 등 지게장인의 메시지가 전달력을 높였다.

전통 운반 도구 중 하나인 지게를 50년 넘게 만들어온 주인공은 소나무가 최고의 재료라고 말한다. 가볍고 튼튼한 소나무가 지게에는 적격이다. 산에서 소나무를 구하고 난 뒤 구해놓은 나무들 짝이 맞는 나무를 손질한다. 그리고 양쪽 몸체를 이어주고 노끈까지 만들어주는 작업도 거치면 지게가 완성된다. 특히, 좋은 나무를 구해서 벌목을 하고 나무를 깎아 대패질, 세장 위치를 잡아 홈파기, 벚짚 엮기 등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지게 제작 방법을 보여주었다. 지게 만드는 작업이 ‘소리와 그림’ 표현되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낫을 이용해 지게를 만드는 동안 ‘서걱서걱 들리는 소리’, ‘거친 나뭇결을 배어 내 새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매끈한 지게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장인의 손길을 지게에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전통을 지키려는 장인의 노력을 지게의 무게에 빚대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30

### 【총 평】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군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에 대한 증언으로 '밝혀진 진실, 울진 민간인 희생 사건'을 방송했다. 경북 울진군은 태백산맥을 줄기로 험준한 산악과 동해를 끼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닌 2개 읍과 8개 면으로 구성된 곳이다. 이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의 가슴 한쪽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울진군에 유독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이유와 무엇이 그들을 억울함과 애끓음에 사무치게 하는지를 인터뷰에 담아내어 기록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울진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 집안 혹은 가족의 몰살과 희생이라는 특성에 놀라움 그 자체였다.

### 【구성 및 내용】

'울진 민간인 희생 사건'도 6.25 전쟁 중에 군인과 경찰에 의해 이른바 부역했다는 이유로 학살이 이뤄진 사건의 전형을 이루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일제에 항거하던 분들의 후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공간에서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 더욱 가슴 아팠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군의 지역 주민들은 조선독립과 농민사회제도 개혁을 위해 '창유계'라는 계모임으로 가장해 항일독립운동 펼쳤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웠다. 인천 상륙작전과 이후 서울을 수복하고, 당시 경북과 영천지역 일대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경북 지역에서도 수복이 이뤄졌다. 전쟁과 서울 수복 등의 혼란한 시기에 인민군의 점령에 의한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부역혐의나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벌되고 희생되었던 그날의 진실에 대해 고스란히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전해졌다.

울진지역 주민들도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신림울시골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희생자가 250여 명에 달했다.

울진의 학살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울시골을 직접 방문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울진경찰서는 연혁의 이름으로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집단 학살된 분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평범한 주민들이 인민군의 부역을 돕고 인민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는 언급도 인상적이었고, 특히, 경찰과 군, 특수부대, 헌병대와 우익 청년단이 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었다.

울진지역 주민들도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신림울시골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살해되었는데 희생자가 250여 명에 달했다. 울진경찰서의 경우는 당시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사건을 재구성하고 희생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건과 달랐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00

### 【총 평】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한 충남 아산시의 사례와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용산구의 임대차 3법에 대한 마을공인중개사 제도를 소개해 시선을 관심을 높였다. 특히, '마을공인중개사'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성과를 거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구성 및 내용】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및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성이 큰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산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공영차고지'로 해결은 프로그램 앞부분에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발생한 사건 사고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 점이 구성상 효과적이었다. 아산시의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현장을 보여주어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이용요금, 홍보 현황 등을 덧붙여 메시지 완성도를 높였다. 대형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353면을 확보했는데, 이용요금은 2시간 이내는 무료 등의 정해져 있다. 또, '공영차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시설과 전기충전시설을 갖춰놓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임대차 3법에 대한 '마을공인중개사' 제도는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완할 수 있었던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전월세 신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법률 개정안을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은 해당 법의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의 마을공인중개사 제도가 운용되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설명하고 용산구에서 무료 상담 부동산을 지정하고 운영하게 된 배경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용산구가 무료 상담 부동산 23곳을 지정해 공인중개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공인중개사 제도의 운영 방식과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등을 언급해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상담을 넘어서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용산구는 향후 1년간의 경과를 보고 확장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04

### 【총 평】

‘친북’은 북한의 이례적인 친서 공개를 두고 그 속내를 살펴보고 북-말레이시아 간의 외교 문제, 북한의 외국 수교 현황 등을 남한과 비교해 가며 다루었다. ‘ISSUE텔링’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유례와 역사적 배경,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지휘권, 환수를 위한 준비작업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노골적인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와 친서 외교 등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분석하고 전작권 전환에 살펴보았다. 이 밖에 북한이 정상간 친서내용을 공개한 사항을 두고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과 국제 정세에 관해 알아보았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은 북한과 말레이시아 단교 선언으로 바라본 미·중과 한반도 정세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알 수 있었다. ‘ISSUE텔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유쾌하게 풀어내 흥미로웠다.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북한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에 친서를 보내고, 이례적으로 친서를 공개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 북한은 한미일의 외교적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을 미국에 인도하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단교를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은 관저를 떠났고 두 나라간 관계는 극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쿠바, 베트남에 구두친서를 보내며 반미연대에 손짓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김여정, 최선희의 비난 보도를 다루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도 대화의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참신하고 공감을 얻었다. 현재 북미 관계는 냉각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은 새로운 대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는 정전체제 상황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며, 한반도 전쟁시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열세에 몰리자 공여지책으로 유엔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겼다. 역대 대통령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등의 문제로 연기되거나 검증 절차를 밟지 못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면 다음 정권이 이양 받도록 이양 날짜를 미국과 합의하는 플랜 B까지 내놓은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짚어보았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3. 28.	시청률	0.003

### 【총 평】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제3회에서 다른 정책은 모두 여섯 가지로 금융정책은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착오송금 반환 제도'였고, 2021년부터 바뀐 도로교통 정책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4월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로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너무 딱딱한 정책 위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선정해 방송했다.

### 【구성 및 내용】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전하였다. 포인트로서 소멸되고 사장되고 있는 돈에 대해 현금화하여 통장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제도를 소개해 주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출시 이후 장기미사용과 휴면계좌 등 자투리 계좌의 현금화 실적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착오금 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절차를 거쳐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착오송금이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번호, 수취금융회사, 송금액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되는 것으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취계좌가 휴면상태거나 압류계좌인 경우 등은 방법이 없었다.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해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인 교통정책이 그 실효를 거두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전속도 5030'정책에서는 시속 50킬로와 60킬로로 운행했을 때 제동 거리를 비교하는 실험이 인상적이었고, 시속 50킬로 혹은 30킬로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또, 출근길 평균 속도를 실제로 따져보며 접근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정책은 최근 신학기를 맞아 더욱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으로 스쿨존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정책이었다. 스쿨존에서는 주 정차가 금지되고,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스쿨존 내의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민이 직접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주었다. 또, 인상된 과태료로 경각심을 주었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해 절대 가혹한 처사가 아님을 강조한 부분도 논리적이었다.

전동킥보드 규제는 강화된 내용 위주로 소개했는데, 단속 사안이 설명이 잘 되었고, 자전 거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만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시 부모에게 과태료 위반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경각심 제공 차원에서 인상적이었다. 사고시 보험 등의 협의 없이 5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도 적용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3. 28.	시청률	0.007

### 【총 평】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중 탄소중립 관련 10대 과제에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등이 들어있다. '그린 에너지로 달린다,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는 그린 뉴딜 정책 중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관련 내용으로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차가 우리생활 어디까지 왔는지, 그 필요성과 이점, 한계와 극복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또, 친환경 미래모빌리티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미래모빌리티가 가져올 혁명적 변화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 예측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모빌리티의 개념, 종류, 왜 친환경 자동차인가, 전기자동차의 역사,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비교 등 주제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구성 방식이 이해도를 높였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차량,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수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디자인 경쟁력, 제조사 이미지 제고, 각종 혜택 등으로 차량 구매가 적은 와중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밖에 전기 자동차와 수소전기차량,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연료비와 이점, 편리성, 안전성, 한계점, 활성화 과제를 세세하게 알려줘 수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한 구성이 만족도를 높였다.

제주와 창원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접근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메커니즘과 장점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진정한 친환경 모빌리티가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언급한 점도 좋았다.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급속충전기 보급 확산 등을 지적했고, 수소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해 내야한다는 점과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들었는데 모두 타당한 이야기로 설득력이 있었다.

진정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되는 에너지원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해야 탄소제로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협력해서 수소에너지 체인을 만들고 많은 대기업이 수소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수소에너지가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무리부분에서 미래모빌리티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를 통해 기술혁신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28.	시청률	0.000

### 【총 평】

도시재생 1번지 전북 전주시와 그린도시로 변신 중인 경기도 부천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현실과 방향을 고민하는 ‘도시의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 도시’를 방송했다. 그린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와 부천시를 통해 그린 뉴딜 대표 사업을 소개하여 ‘도시 재생 그린뉴딜 정책’의 실체를 자세히 보여주었다.

산업화 이후의 노후화와 환경오염의 위기가 재탄생 및 스마트 그린 도시로서 탈바꿈화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탄소 중립화로 우리의 일상이 훨씬 더 스마트화되고 ICT의 정보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할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도시의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 도시’는 전주시와 부천시를 대표 사례로 들어가며,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낙후 지역은 도시 재생 뉴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개발 지역은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기술을 선보이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1960년대 산업단지 중심이었던 전주시 팔복동은 폐산업 시설을 창작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시킨 곳이다. 옛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던 팔복예술 공장의 그 시절 모습과 함께 전주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팔복동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잘 꼬집어내어 감성을 자극했다. 팔복예술 공장은 지역의 예술가와 건축가, 당시 노동자들까지 협업해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 벗어난, 지역민 주도의 점진적 개발을 이룬 곳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차원을 넘어선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녹색 탄소 ICT 마을숲’과 ‘스마트 그린에너지 마을’ 조성, 탄소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효과, 소노동예술촌 변화 등 반전 매력으로 국내외적으로 멘토 도시가 된 그 실체를 전주시에서 잘 보여주었다.

고밀도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부족한 부천시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는 미세먼지 스마트 시티를 구축 중이다. 또, 공유경제로 풀어내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공유경제플랫폼을 통해 주차 관련 통합 서비스를 실증 분석하는 현장을 소개하였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천지역은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해서 많은 자동차 배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임과 동시에 분지형으로 인해 대기가스의 순환이 어려운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천 지역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로의 탈바꿈 전환을 소개하였다. 부천 역곡동의 일반주택 단지의 재정비와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관해 전하였다.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주차 및 킥보드 등이 공유화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